

인적 끊겨 적막...“안 그래도 힘든데” 인근 상인들 분통

무더기 확진 광주 성인오락실 주변은

환기 제대로 안되는 좁은 공간 감염 우려 상존
게임장 옮겨다니는 손님들 많아 확산 가능성
“언제까지 적자 내며 가게 운영해야 하나” 울상

지난 31일 1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광주 북구 신안동 '킹 성인게임랜드' 주변은 지나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적막했다.

이날 오후 5시까지 성인오락실 관련 코로나 확진자는 총 34명. 북구 신안동 킹 성인게임랜드와 관련성이 있는 확진자는 18명에 달한다. 인근 상인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데 평소 지나가던 사람들도 돌아다니는 형편이니 더 힘들게 생겼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5차선 도로 맞은편에 있는 성인오락실 입구에는 '회원만 입장 가능'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성인게임방 관계자는 “한 곳만 다니지 않고 게임장을 옮겨 다니며 그날 운이 좋은 명당(?)을 찾아 다니며 게임을 즐기는 손님들이 많다”면서 “방역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성인오락실도 많아 회원만 받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장 입구에는 '타 게임장 방문자-체온 37도 이상자-음주자-이상중세(기침)자 입장 불가'라는 안내문도 붙어있었다. 입구에 적힌 '입장 가능 인원 12명' (면적 8㎡당 1명)이라는 안내문을 보고 들어가보니 내부에는 5명만 게임을 하고 있었다.

출입명부, 신분증 검사, 체온체크 등 방역수칙을 따를 것을 안내했고 테이프 표지를 해서 '게임기 거리두기'도 실시하고 있었다.

인근 상점가 식당주인은 “마스크를 썼다고 해도 환기도 잘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게임을 하는 데 집단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주변 상인들은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운 판국에 주변에서 코로나 확진자까지 발생해 영업에 더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허탈해하고 있다.

인근에서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여·53)씨는 “영업금지 등 정부가 지키라는 방역지침을 다 지키며 1년을 버텼는데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이 일대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텐데 이제 주변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주변 다른 식당 주인 김모(여·55)씨는 “오늘도 오전 내내 손님이 하나도 없었지만, 문을 닫고 있으면 코로나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돌까봐 문을 닫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적자를 알면서 이렇게 문을 열고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북구 '킹 성인게임랜드'가 코로나 확진자 발생이후 지난 27일부터 출입문을 폐쇄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생계도 중요하지만...

성인오락실서 일하던 과외교사 전파에
고교생 제자 일가족 감염 '코로나 생이별'

회사원 A씨는 지난 27일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급박한 전화를 받았다. 큰 아들이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했으니 온 가족이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네 가족이 보건소로 향했다. 다음날 진단검사 결과 아내를 제외한 자신과 아들, 딸이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후사정을 알아보니 아들이 과외 교사로부터 감염된 것이었으며, 과외 교사는 성인오락실 직원이었다고 한다.

“아니 과외 선생도 선생인데, 어떻게 감염 우려가 있는 성인오락실에서 근무할 수가 있나. 과외는 선생과 제자가 1~2시간을 붙어 있기 때문에 감염을 피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여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병실이 없어 28일 하루는 아버지-아들

딸이 불안 속에 각자의 방에서 날을 썼다. 음성판정을 받은 아내는 친척집으로 옮겨갔다. 불안 속에 뜬 눈으로 날을 세고, 29일 오후에서야 아들은 N시 의원으로 이송됐으며 A씨와 딸은 M시 의료를 배정받았다. 하지만 딸이 얼마전 간단한 시술을 받은 상대라 시술후 처치가 가능한 의료 시설이 필요, 방역 당국에 상황을 설명한 끝에 다른 군의 의원으로 옮겨갔다. 특히 아들은 고3이라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한 시기이지만 이제는 공부보다 코로나 완치부터 신경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N의료원에 입원한 아들은 병실에서 같은 과외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았던 고2 확진자를 만나면서 '멘붕'에 빠진 상태라고 한다. 혼자 친척집에 머물고 있는 A씨의 아내는 흑시나하는 마음에 아직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가족들 격정으로 불안

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문제는 A씨 가족으로 끝나지 않았다. A씨와 직간접으로 접촉한 친구들 가정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A씨는 미안한 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영업적인 친구는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방역수칙에 따라 혼자만의 공간(원룸)에서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며, 또다른 친구도 사택에서 혼자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A씨는 “일도 중요하고, 생계도 중요하지만 과외 교사나 유치원 선생님, 간병인 등 업무 대상과 밀착해서 일하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야 하는 일이나 업무를 피하는 것이 기본”이라면서 “코로나가 끝날때까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려는 배려 깊은 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노동자들, 회사 상대 승소 잇따라

직접 고용·임금 차액 지급 판결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회사측이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임금 차액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로, 노동계에서는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회사 안팎에서는 잇따르는 소송으로 인한 부담에다, 노조가 5일 총파업을 예고한 점을 들어 곤혹스러움도 엿보인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3부(부장판사 송인경)는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3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소송에서 “금호타이어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협력업체 직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18억 9000만원 규모의 손해 배상 요구에 대해서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며 노동자측 손을 들어줬다.

A씨 등은 금호타이어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제

결된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 계약에 해당하는데, 파견 노동자들을 2년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 원고들을 사용했으므로 금호타이어측은 원고들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금호타이어측과 타이어 제조 공정 일부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사실상 금호타이어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들은 소속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연말 성급금, 무정액 타겟금, 학자금, 격려금, 하계휴가비와 4대 보험료 상당액을 금호타이어로부터 지급받았고 노사 분쟁 과정에서 들어간 노무사 선임비용도 지급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또 이날 B씨 등 44명이 제기한 27억원 규모의 ‘고용의사표시 청구’ 소송에서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이들 외에도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3차례에 걸쳐 회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고용 의사표시 소송 등을 광주지법에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음주운전 사망사고 20대 영장 신청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현대기중원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회사원 A(28)씨(광주일보 1월 4일 6면)에 대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3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일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맞은편에서 신현대기중원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낸 운전자 B(28)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오는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경찰은 사고로 입원했던 A씨의 치료가 마무리된 데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적장애 선배 고문·학대·착취

‘악독한 연인’ 징역 15년씩 선고

광주지법 ‘엄벌 필요성 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선배를 한집에 살게 하며 고문하고 학대한 20대 연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는 특수중상해, 특수중강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그의 여자친구 B(24)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상해를 입었고 신체·정신적 고통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

도 평택시 자택에서 중학교 선배인 C(25)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벌여오라고 강요해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같은 중목 운동을 해 연인이 있던 C씨를 평택으로 불러 함께 생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그만두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C씨를 골프채,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했고 끊는 물을 몸에 끼얹거나 불로 몸을 지졌다.

화장실에서만 생활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빌리지도 않은 돈의 차용증을 쓰게 하고 도망가면 가족을 해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B씨는 경도 지적장애로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는 C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반복,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